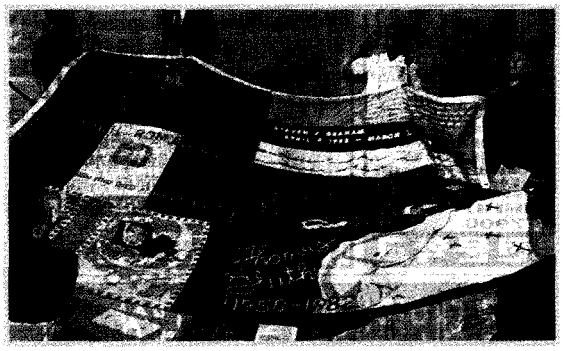


유엔대표단이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대형 추모이불을 펼치고 있다. 이 이불은 오는 25일 개막되는 유엔총회 에이즈 특별회의에서 전시된다.(뉴욕=AP 연합)

코피 아난 - 10만달러 에이즈퇴치펀드에 기증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63)은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 오는 7월 4일 받게 될 필라델피아 자유 메달상의 상금 10만 달러를 국제 에이즈 퇴치 펀드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그의 대변인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국제 에이즈 퇴치 펀드는 지난 주 아난 사무총장이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에이즈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것으로, 그는 펀드 설립이 후 처음으로 돈을 기부하게 됐다.

필라델피아 자유 메달은 1998년 미국 헌법 제정 200주년을 맞아 만들어진 것으로 자유를 위해 리더십을 보인 개인이나 조직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아난 사무총장은 평화와 사회정의 및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로이터인터넷, 5/15)

에어로빅, 성인 HIV 양성환자들에게도 도움돼 - 美 연구결과

HIV 환자들의 피로감, 체중 변화 또 이 질환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각종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로빅은 암에서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각종 만성 질환 환자들의 상태를 개선시켜왔는데, 이번 예비연구 결과 에어로빅이 HIV 환자의 상태도 호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보고했다. 미국 앨라배마 대학 간호대학의 바바라 A 스미스 연구팀은 HIV 감염환자 60명에게 12주 동안 에어로빅을 하게 한 뒤에 지구력과 신체구조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살펴봤다. 스미스 연구팀은 그 결과 에어로빅을 한 환자들은 12주 후에 지구력과 체중이 늘었고 체지방이 줄었다. (로이터인터넷, 5/16)

헤로인 중독 치료제 메타돈, 면역세포의 HIV 감염 가능성 높여 - 美연구결과

헤로인 중독 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메타돈(methadone)이 인간 면역세포의 HIV 감염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실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스티븐 D 더글러스 박사팀은 인간세포 배양 조직을 메타돈에 노출시켜 메타돈이 인간면역 세포의 HIV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메타돈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가 면역세포로 진입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수용체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또 메타돈이 약물 남용자가 아닌 HIV 감염환자의 혈액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 작업을 실시한 결과 "메타돈이 잠복상태에 있는 HIV 감염 세포의 활성화와 복제를 강화"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로이터인터넷, 5/17)

아 · 태 10代 60% 에이즈 위험에 無知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의 초 · 중 · 고생 10명중 6명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공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디라통신은 16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시아 · 태평양 담당 국장 메르 칸을 인용해 역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에이즈로 인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1년 6월 9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12살의 에이즈운동가 은코시의 장례식에서 한 남자가 은코시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과 미 보건부 장관 타미 톰슨과 악수하고 있다.

UNICEF가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 역내 17개국에 거주하는 9~17세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에이즈와 관련된 상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무지했다는 것이다. (무등일보, 5/17)

남아공, 에이즈 사망자 증가로 묘지 부족 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업도시인 요하네스버그가 늘어만가는 에이즈 사망자로 인해 묘지로 사용할 땅이 부족한 지경이라고 이 지역의 새터데이 스타紙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아공에서는 에이즈 관련 사망자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수치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 새터데이 스타紙는 묘지 관리 당국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곳에 여러명을 동시에 매장하는 방법과 매장한지 20년이 지난 무덤은 다른 시체를 위해 파내는 방안 등 파격적인 방안들까지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인터넷, 5/29)

美 에이즈환자 75만4천명

미국에서 지난 81년 에이즈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미 전역에 총 75만4000여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USA 투데이는 29일 1면 커버스토리로 미국 에이즈 발생 20년 특집기사를 싣고 20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성 동성애자 5명에게서 에이즈 감염이 발견된 이후 2000년 6월까지 집계된 미국 내 에이즈환자는 약 75만 4000여명에 이른다면서 이들 가운데 43만9000명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만 6000여명의 새로운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에이즈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 에이즈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없다고 신문은 밝혔다. (문화일보, 5/30)

에이즈발견 20주년 - 2,180 만 명 목숨 앗아가

'20세기의 흑사병' 으로 불리는 에이즈가 5일로 발견 20주년을 맞는다. 1981년 6월 5일 미국 뉴욕의 남성 동성애자에게서 처음 발견된 에이즈는 불과 20년만에 5,780만 명의 감염자를 낳았고, 그 중 2,1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에이즈 발견 20주년을 맞아 에이즈 실태와 대책 등 특집 기사를 잇달아 보도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CNN, 유에스에이 투데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은 "에이즈가 발견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루에 1만 6,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면서 전 세계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6/1)

에이즈 퇴치운동 상징 남아공 소년 끝내 숨져

천형(天刑)으로 불리는 에이즈와 싸워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어린이 에이즈 환자 은코시 존슨이 1일 12세의 나이로 숨졌다. 1989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채 태어난 은코시군은 지난해 더반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에이즈회의 개막식에 연설자로 나서는 등 에이즈 퇴치 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어린이 에이즈 환자

중국 어린이감염인

당시 그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에이즈환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상인들처럼 대해달라"고 호소해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윤코시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윤코시군은 매우 용감한 소년이었으며 삶을 위해 싸운 상징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6/2)

영국, 에이즈 경각심 줄며 신규 환자 급속히 증가 - 英 보건당국

영국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서서히 줄면서 신규 HIV 진단 환자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영국의 에이즈 실태는 서구 유럽 기준에 비하면 아직 준수한 편이지만 영국 보건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소(PHLS)에 따르면 일반인 뿐 아니라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된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위험한 성행위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0년 HIV 신규 환자로 진단된 사람의 수는 3천425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수치는 1985년 에이즈 테스트가 널리 실시된 이후 최대 수치라고 PHLS는 밝혔다.

앵구스 니콜 박사는 에이즈 뿐 아니라 다른 성병 감염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사람들이 점차 HIV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인터넷, 6/4)

에이즈 등 증식 차단 혈액처리법 개발

미국 생명공학벤처 세리스사는 최근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되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혈액 내에서 에이즈바이러스(HIV) 등 각종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혈액처리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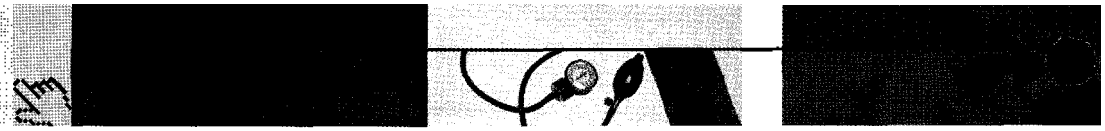
세리스가 '헬링크스(Helinx)'로 이름 붙인 이 혈액처리법은 '소랄렌(psoralen)'이라는 광화학물질을 적혈구에서 분리된 혈장과 혈소판에 첨가해 이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등 병원체의 핵에 침투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랄렌이 병원체의 핵에 침투한 뒤 자외선을 쏘이면 소랄렌이 활성화되면서 병원체의 DNA 및 RNA에 강력한 결합을 형성, 복제를 못하게 함으로써 병원체가 번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 방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상용화되면 혈액 또는 혈액을 이용한 각종 제품 내의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에이즈나 매독, 감염 등이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6/6)

에이즈바이러스 저항력 가진 새로운 체질 증가

에이즈가 인류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분교의 스래트킨 교수 연구팀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후 발병에 이르는 시기를 늦추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5월 31일 자 '네이처'에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에이즈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CCR5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에이즈 바이러스에 보다 강한 저항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에이즈가 퍼지기 시작한 뒤 40%에서 50%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쉽게 에이즈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에서 10%로 줄었다. CCR5는 면역세포 표면의 수용기를 만드는 유전자이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입하기 전 이 수용기에 결합하기 때문에 만약 수용기의 형태가 변하거나 아예 없다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에 침입할 수 없게 된다. (동아일보, 6/7)

유엔총회 에이즈 퇴치를 위한 특별 회의 마련

지난 5일로 에이즈가 발견된 지 20주년이 됐으나 뚜렷한 치료법 없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연합(UN)은 6월 25일에서 27일까지 총회에서 에이즈 퇴치를 위한 특별 세션을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은 5월 24일 유엔 에이즈 계획(UNAIDS)과 함께 여성의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해 공동노력을 펴나가기로 했다.

UNAIDS의 대표 피터 피어엇 박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특별 세션이 에이즈 퇴치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각 국이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복잡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며 극빈국에 부담스러운 약 가격 등의 문제 를 해결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신문, 6/8)

캐나다, HIV 양성 환자도 선별적 이민 허용 예정

캐나다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람이라도 자동적으로 모두 이민을 금지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엘리너 캐플란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승인이 예정된 법안에 의거, 새롭게 실시될 예정인 HIV 의무 검사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온 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이라도 사례에 따라 선별적으로 캐나다 이민이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민자에 한해서만 HIV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로이터인터넷, 6/13)

에이즈, 중앙亞 - 동유럽 확산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에이즈가 연간 4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옛 소련에서 갈라져 나온 이 지역 국가들의 에이즈 확산은 마약의 밀매 통로와 일치 하고 있어 국제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00년 기준 약 70만 명. 그런데 감염인들 중 40%인 28만 명은 지난 해 신규 감염자다. 러시아의 경우 87년 에이즈 감염자가 첫 발견돼 99년까지 2만90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만 5만 명이 새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 됐다.

경제난과 고실업으로 인해 좌절감에 빠져든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약물 투약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리는 비율이 절대적이다. (문화일보, 6/15)

코카콜라,다임러 - 아프리카 에이즈퇴치나서

클락소스미스클라인 브리스톨마이어 스스퀩 등 에이즈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제약업체는 물론 코카콜라, 다임러, 크라이슬러, 포드, 유니레버, AOL-타임워너 등 2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조만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 보도했다.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코카콜라. 아프리카에만 10만 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코카콜라는 유엔 산하 에이즈퇴치기구인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과 손을 잡고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아프리카 5개국에서 교육, 예방, 치료를 위한 3단계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카콜라의 에이즈프로그램은 15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에이즈감염 종업원과 가족들에 대한 무료치료, 전국적인 배달망을 이용한 콘돔 및 에이즈 치료제 무상배포, 지역 에이즈퇴치기관에 관계자 파견, '유엔글로벌에이즈펀드' 에 기금 기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아일보, 6/22)